

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

1. 출장건명 : OECD 농업위원회 산하 작업반회의 결과보고

- 2013 OECD 농정시장작업반(60차 APM) 및 농업무역합동작업
반(69차 JWPAT) 회의

2. 참석자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부 이병훈 부연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온누리 사무관

충북대학교 전익수 교수

※ 현지 참석 : OECD 대표부 박재락 1등서기관

3. 출장일정

일 시	장 소	내 용	비 고
5월 21일(화)	인천 → 파리	출발, 도착	1박 1일
5월 22일(수)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2박 2일
5월 23일(목)	OECD Conference Centre	APM 회의참석	3박 3일
5월 24일(금)	OECD Conference Centre	JWPAT 회의참석	3박 4일
5월 24일(금) ~25일(토)	파리 → 인천	귀국	3박 5일

4. OECD 회의 의제 목록

4.1. OECD 60차 농정시장작업반(APM)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Draft agenda of the 60 th session	TAD/CA/APM/WP/A(2013)2
Item 2	Draft summary record of the 59 th session	TAD/CA/APM/WP/M(2013)1
Item 3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13-2022	
	part 1. Outlook in Brief, Overview, and Special Feature	TAD/CA/APM/WP(2013)11
	part 2. Commodity Chapters	TAD/CA/APM/WP(2013)12
	part 3. Statistical Annex	TAD/CA/APM/WP(2013)13
Item 4	Agricultural Policies: Monitoring and Evaluation 2013 OECD countries and selected emerging economies	
4.a	Executive Summary	TAD/CA/APM/WP(2013)14
4.b	Part I – Developments in Agricultural Policy and Support	TAD/CA/APM/WP(2013)15
4.c	Part II – Country Chapters	TAD/CA/APM/WP(2013)16
4.d	Statistical Annex – Additional Tables on Estimates of Support to Agriculture	TAD/CA/APM/WP(2013)17
Item 5	Review of policies in the general service support estimate (GSSE): report on the pilot questionnaire	TAD/CA/APM/WP(2013)18
Item 6	Increasing innova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vity: Scoping paper	TAD/CA/APM/WP(2013)19
Item 7	FAO-OECD work on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agricultural supply chains -- Update	oral report
Item 8	Report on OECD participation in the Agricultural Market Information System (AMIS)	TAD/CA/APM/WP/RD(2013)4
Item 9	Agriculture's enabling environment: Scoping paper	TAD/CA/APM/WP(2013)20
Item 10	Country level assessment of Policy Coherence for Development (PCD) impacts on food security in developing countries	oral report
Item 11	Progress report on the preparations of the workshop “Enhanc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growth globally to meet a doubling of demand”	TAD/CA/APM/WP/RD(2013)5
Item 12	Other business	
12.a	Update on OECD work on green growth	oral report
12.b	Information on the public release of the Review of Agricultural policies: Kazakhstan in Astana, 29 April 2013	oral report
12.c	Outcome of written procedures since the last session of the Working Party	TAD/CA/APM/WP/RD(2013)6
12.d	Progress report on APM activities	TAD/CA/APM/WP/RD(2013)7
12.e	Communication i) Presentation of the OLIS system ii) Presentation of Delegates' Corner	oral report
12.f	List of actions and decisions	Room document

4.2. OECD 69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JWPAT) 회의

Item 번호	의제명	문서번호
Item 1	Adoption of the Agenda of the 69 th Session	TAD/TC/CA/WP/A(2013)1
Item 2	Adoption of the Draft Summary Record of the 68 th Session	TAD/TC/CA/WP/M(2012)2
Item 3	Synergies between private standards and public regulations – Scoping paper	TAD/TC/CA/WP(2013)1
Item 4	The impact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on Chilean fruit exports	TAD/TC/CA/WP(2012)3/REV1
Item 5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agriculture: what have we learned? - Scoping Paper	TAD/TC/CA/WP(2013)2
Item 6	Export restrictions on agricultural products: Findings from the database	TAD/TC/CA/WP(2012)4/REV1
Item 7	Update on the Accession of the Russian Federation	
Item 8	Other business	

5. OECD 제 60차 농정시장작업반(APM) 및 제69차 농업무역합동작업반(JWPAT) 회의결과

5.1 주요 핵심 논의결과

- ‘OECD-FAO 농업전망 2013-2022’ 공개결정
 - 6월 6일 베이징에서 최종본 공개예정
-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 2013’ 공개결정
- ‘농업발전환경’ 및 ‘농업생산성과 혁신’ 연구방향 논의
- ‘민간표준과 공적규제의 시너지’ 시범국가 사례분석 참여제안

5.2 주요 의제와 논의 내용

(1) 제60차 농정시장작업반

< 농업정책평가보고서 2013년판 공개 결정 >

- OECD 회원국 농정동향 및 보조금 수준을 다룬 농업정책평가보고서 2013년판에 대한 수정작업 및 최종 공개결정
- 농업정책 모니터링 및 평가의 시간범위
 - 미국은 곡물 보험에 대해 미국정책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평가기간동안 변화된 정책만을 기술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 존재하는 정책을 설명하는지 구별이 어렵다고 문제 제기
 - 사무국은 농업정책의 변화만을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함
-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으로 인한 정부지지수준 상승
 - 노르웨이는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때문에 정부의 지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된 것에 대해 가치 판단을 배제한 기술을 요구함

- 사무국 및 EU 등은 식량자급률 목표설정이 정부 지지수준 상승을 이끌어갔다는 표현(driver)이 아닌 완화된 표현 제안

<OECD-FAO 농업전망 2013-22>

- ‘OECD-FAO 공동 농업전망 2013-22’ 보고서 공개 논의
 - 특별주제 (Feeding China: Prospects and Challenges in the Next Decade) 및 품목별 상품시장 전망치 제시
- 6월 베이징에서 FAO와 공동으로 보고서 최종본 공개
 - 5월 25까지 서면의견을 받은 후 최종본을 온라인 회람하여 의견 수렴
- 회원국들은 수정사항을 요청
 - 일본은 곡물전망과 관련하여, 아시아지역 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와 지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기를 요청
 - 프랑스는 중국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농업정책과 다른 산업정책과의 연계 부분을 보다 더 상세히 언급하기를 제안
- 사무국은 이번 회기 내에 보완관련 서면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
 - 최종 확정과 농업전망 발표(6월 6일 베이징 컨퍼런스에서 OECD, FAO, 중국정부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

<일반서비스추정치(GSSE) 시범질문에 대한 보고>

- GSSE 개선작업의 필요성
 - 회원국 및 신흥경제국에서 GSSE에 해당하는 정책이 늘어 정확한 측정의 필요성이 높아짐
 - 개별농가에 직접 귀속되지 않는 정부정책수단 측정의 필요성 제기 (2010년 OECD 각료회의)
- GSSE의 범주 및 하위분류에 대한 사무국의 초안을 시범국가들에 적용하여 발생한 문제를 반영하여 수정분류안 논의
- 사무국이 수정 제안한 세부분류방법에 대한 논의

- (미국)카테고리들은 상호배제적이 아니어서 완전히 구별되지 않으므로 명백히 세분화하여 적용하기를 요청

- 정책의 질적 정보를 표시하는 라벨

- (체코, 미국)GSSE의 분석의 유용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

- 국가별 비교가능성

- (프랑스)국제적 비교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진행하기를 제안

- (일본)새로운 분류방법을 1986년까지 역산하여 적용하는 문제

- 사무국은 과거자료의 대용물(proxy)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답변

<혁신과 농업생산성 제고>

- 혁신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범국가 사례분석(Country Reviews), 민관협력(Partnerships), 성과평가 지표 및 방법(Evaluations), 농가 생산성(Farm productivity)에 대한 분석 소개

- 농업분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민관협력의 전략적 PPP(Public-Private Partnership)에 대해 별도로 발표

- 회원국은 사무국의 연구발표를 수용함

- (아르헨티나) 농식품 혁신은 다른 분야의 혁신과 깊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함

- 6월 17-18일 워크숍을 개최하고 시범국 사례분석을 진행

- 사무국은 생산성 증가를 위한 혁신은 자원약탈적인 방식이 아닌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OECD의 Green Growth 개념을 확실히 함

<농업의 발전 환경>

- “정책일관성과 세계 식량안보” 관련한 4가지 연구의 하나로 신흥국과 개도국의 정책집행자들이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할 것인지 분석

- 신흥국과 개도국들이 농업부문 경쟁력을 제고하는 여건(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로 회원국들이 대체로 지지
 - 그러나 일부 회원국(일본, 프랑스, 스페인, EU 등)들은 상위연구인 “정책일관성과 세계식량안보”와의 낮은 연관성, 분석방법 및 범위 설정(지표 구분 등)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하며 향후 연구의 보완을 요구
- 사무국은 농업부문과 경제전반에 걸친 정책들을 농업경쟁력(식량안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을 가능하도록 한다고 설명
 - 농업인, 농촌 및 지역경제, 전후방산업, 일반경제 등과의 연관성에 따라 구분하여 지표를 설정하는 시도

(2) 제69차 농업무역공동작업반

<민간표준과 공적규제의 시너지>

- 민간 및 공공기준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정부의 이해 제고
 - 회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민간 농업환경 기준(private agri-environmental standards)의 범위, 이행 및 실시를 위한 정부참여 수준을 제시
-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이 연구가 시의적절하며 분석의 결과가 유용할 것이라고 발언
 - 스위스, 프랑스, 한국은 국가별 사례분석에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힘(한국은 공적규제와는 달리 민간표준이 아직 발달되어있지 않아 이것이 문제되지 않는 경우 참여를 지원)
 - 프랑스는 기업-기업 기준과 기업-소비자 기준을 구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브라질은 국가별 민간표준이 다를 수 있다는 유의점을 제시
- 사무국은 연구와 관련한 유용성 기준으로 개념을 정의할 것이며 각국의 국내분석이 이루어진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

<농산물 수출제한>

- 2007~2011(2012) 기간 동안 16개국(농산물 수출대국)을 대상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DB 구축 및 분석내용을 제시

- 수출제한조치 실행 이유는 ‘식량안보’와 ‘국내가격 안정’
 - 상대적 다수인 수출국이 수출제한조치를 도입할 경우 국제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크며, 타 수출국 동조시 여파 증폭
- 사무국이 수정 제안한 연구보고서에 대한 논의
-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수의 회원국들이 수정본 자체로의 공개를 지지하며, 다음 연구로 수출제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것을 진행해주기를 요청
 - 아르헨티나는 수출세 부과에 따른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자국에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기술한 부분에 대해 반발함
 - 영국은 생산, 수출, 수출제한 등 주제들 간의 연관성이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향후 연구에서 수출제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 연구의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은 후 대표단 코너에 수정된 보고서를 올려 의견을 받겠다는 일정을 설명

5.3 세부 논의결과

OECD 농정시장작업반(60차 APM)

1. ‘OECD-FAO 공동 농업전망 2013-22’ 공개 결정 논의

- OECD 사무국 및 FAO에서 농업전망 2013-22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회원국들에 설명함.
 - 본 보고서에서는 특별주제로 ‘Feeding China: Prospects and Challenges in the Next Decade’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으며, 바이오 연료, 곡물, 유지류, 당류, 육류, 낙농제품, 수산 등 개별 상품시장의 전망치를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의 최종본은 6월 베이징에서 FAO와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임.
- 회원국들은 사실관계 및 편집 등에 관한 경미한 수정사항을 요청(일본은 곡물전

망과 관련하여, 아시아지역 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표와 지수에 대한 설명이 추가되기를 요청)하였고, 중국에 대한 특별보고서에서 농업정책과 다른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에 대한 부분이 보다 더 상세히 언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함

- 최종 확정과 보고서 발표(6월 6일 베이징 컨퍼런스에서 OECD, FAO, 중국정부가 공동으로 개최) 일정이 빠듯하여 이번 회기 내에 보완관련 서면의견을 사무국에 제출해줄 것을 요청함.

2. ‘농업정책평가 보고서 2013년’ 공개 결정 논의

- 먼저 개별 회원국 농업정책을 평가한 Part II 부분에 대한 해당국의 검토 의견 발표가 진행됨.
 - 사무국은 국가별 정정 요청사항을 검토하여 추후 국가별로 담당관과 개별적 서면 의견 교환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최종본을 완성하기로 결정함.
- 다음으로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발전을 다룬 Part I, Chapter 1 부분에 대한 회원국의 검토의견 발표가 있었음.
 -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자국 정책과 관련된 서술의 사실관계 정정을 주로 요청함.
 - 미국은 곡물 보험에 대해 미국정책에 대한 설명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은 평가기간동안 변화된 정책만을 기술하는지 아니면 그 기간에 존재하는 정책을 설명하는지 구별이 어렵다고 발언하였고 사무국은 이에 대해 명확하게 변화여부를 서술하겠다고 설명함.
- 다음으로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를 다룬 Part I, Chapter 2 부분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짐.
 - 프랑스, 오스트리아, 핀란드 등은 국가별 보고서 중 EU 부분(파트2의 9장)에서 유럽의회 CAP 조항 68(Article 68)에 의한 보조금이 전체 10%에 불과하지만 시장 경쟁체제의 왜곡을 초래한다는 표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음.
 - 영국에 이에 대해 인정하는 분위기로 의견을 제시함.
 -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이 시장왜곡을 초래하는 보조정책들을 포함한 각국의

지지정책들의 전반적인 흐름에 대한 기술에서 그룹화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음. 특히, 유럽과 아시아 국가들을 한 부류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기준으로 국가들을 함께 묶은 것인지 문의가 많았음. 특히, 지지정책의 내용면에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발언함

- 뉴질랜드는 시장왜곡을 일으키는 지지정책이 각국의 정책변화에 의해 얼마나 감소했는가를 언급하는 Box 2 부분에서 한국의 유제품에 대한 부분이 다소 긍정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함. 즉, 한국의 유제품 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에는 한국 정부의 역할은 거의 없고 민간에서 쿼타관리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기때문이라는 기술에 대해 OECD가 이를 옹호하는 것인가라고 문제제기함.

- 이에 대해 OECD 사무국은 보조금을 사용하는 국가별로 상황이 다를 수 있고, 시장 왜곡의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 측면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룹화에 대해 지지정책의 수준(강도)과 변동 폭에 근거하여 묶었는데, 다른 방법(국가적 특성, 정책의 특성 등)이 있는지 향후 검토할 것이며 한국의 서술에 대해 가치판단이 아닌 상황에 대한 기술일 뿐이라고 설명함.

○ 마지막으로 회원국 농업정책에 대한 핵심요약부분에 대한 회원국들의 의견 제시가 이루어짐.

- 노르웨이는 식량자급을 목표 설정 때문에 정부의 지지 수준이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의 하나로 지목된 것에 대해 (전체적으로 support가 줄어들고 있지만 일부국가에서는 자급을 목표 설정 때문에 여전히 높다는 것)에 가치 판단을 배제한 기술을 요구함.
- 미국은 동물복지가 핵심요약의 한 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
- 프랑스는 문단10의 위험분석의 컨셉 단어 사용에 대한 문제제기.
- 사무국은 회원국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본을 제시할 것이며 내일 다시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

3. GSSE에 속하는 정책 검토: 시범질문에 대한 보고

- 사무국은 현재 GSSE의 정의 및 분류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각국에서 새롭게 개발되는 정책들을 분류하기 곤란하여 농정평가에 있어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비교를 위하여 개선 작업이 계속됨을 설명하고 11월 회의에서 새롭게 제안된 GSSE 분류방식을 일부 국가에 시범 적용하여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GSSE 분류방법 개정안을 토론할 것을 요청
- 사무국이 시범국 적용에서 발생한 문제를 개선하여 제시한 GSSE의 분류에 대하여 회원국들은 과거자료에 대한 proxy 사용, 정책의 질적정보를 활용한 labeling 등의 개선방안에 대해 지지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 노르웨이 : 모든 종류의 하부구조를 포함하는 것인지, 대체물 과거데이터 사무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유용할 것,
 - 프랑스 : 시범국의 결과가 매우 유용하여 감사를 표시함, 노르웨이에 동의하며 비교가능성의 문제, 불확실성의 범위, 특징의 신뢰성, 등의 문제 발생 우려.
 - 에스토니아 : 유용한 도구에 해당하나 카테고리라이징 하는 문제와 pse tse에서 발생한 문제와 같이 구별하는 것 food and market 추정하는 것은 복잡하며 모든 카테고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 카테고리에 다른 개념을 사용하여 어떤 것이 포함되며 포함되지 않는지 확실히 해야할 것, 국가들에 다른 개념이 사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미팅 제안
 - US : 카테고리들은 상호배제적이 아니므로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 아님, pse 보다 세분화된 개념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으나 명백히 세분화하고 적용해야 함 자료를 제공하여 유용하게 적용 문제에 해결을 제안하고 분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짐.
 - 네덜란드 : 국가들 비교가 가능한지가 제일 큰 문제이며 과거 데이터를 적용하기 어려움을 우려.
 - 아르헨티나 : 카테고리의 개념이 모호하여 다시 정립이 필요하고 특히 마케팅 프로모션, 서비스 등의 개념을 사용자친화적으로 개념을 정해야 함
 - 일본 : 과거 정보가 분산되어있어 활용 어려움 예상
- 사무국은 최근 신흥경제국에서 GSSE에 해당하는 정책이 늘어 이를 정확히 측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시범국이 과거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이므로 모든 국가에 정답을 제

공할 수는 없으나 사무국이 가이드를 제공하여 프록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설명할 계획임. 제일 명확한 개념정립이 이 접근의 최우선순위이며 PSE와는 다른 차원이므로 GSSE만의 개념을 정립할 계획임. 현재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 개선과 국가들의 정책이 GSSE에 해당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이노베이션, 인프라, 마케팅 등 국가간, 기간간 비교가능성 문제에 대해 결과를 제시할 것이며 내년 M&E 보고서 작성시 개선된 GSSE를 적용할 예정이므로 11월 APM에서 논의 마무리를 할 예정이며 6월까지 의견제출 요청함

4. 혁신과 농업생산성 제고

- 이 보고서는 2010년부터 시작된 OECD의 ‘농업과 농식품분야 혁신’에 대한 일련 작업 일정들 중에 2013-14 시즌에 해당하는 중간보고서이며 2011년에 Alston(2010)과 Latruffe(2010)의 컨설팅 보고서를 기초로 OECD 농업위원회 (CoAg)의 작업과 예산 프로그램(PWB)에서 ‘농업분야 생산성과 경쟁력 제고’ 보고서가 발간되었음. 앞으로 혁신과 농업생산성 제고를 위한 시범국가 사례분석 (Country Reviews), 민관협력(Partnerships), 성과평가 지표 및 방법 (Evaluations), 농장 생산성(Farm productivity)에 대한 개별적 내용과 일정 소개함
- 회원국들은 사무국의 연구발표를 수용하며 모호한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내용 서술을 부탁하였고 전문가 연구를 시행하여, 농식품 혁신은 다른 분야의 혁신과 깊게 연계되어 있으므로 상호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시너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개진함
- 사무국은 코멘트에 감사하며 이후 6월 17-18의 워크숍과 케이스스터디를 진행하고 14년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며 14년 11월에 최종보고서 발간 예정임을 설명함

5. FAO-OECD 농업 공급체인에서의 책임있는 경영 연구경과보고

- 사무국은 농업위원회의 2013-14년 작업계획 농업투자, 투자위원회 2011-12, 2013-14년 작업계획에 있는 중간결과물을 설명함, 이것의 목적은 투자자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여 농업 공급체인에서의 책임있는 경영을 증진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며 이 내용은 지난 2012년 APM 회의에 제시되었음

6. 농업시장정보시스템(AMIS)

- 사무국은 지난 4월 23-4일에 열렸던 정보그룹회의를 포함하여 시장과 정책에 관한 변수의 개발에 노력하였으며 품목균형 개선에 진전이 있었음. 이와 같은 결과는 AMIS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함. 다음 Information Group Meeting 은 10월 로마에서 개최될 예정임을 설명함.

7. 농업발전환경

- 사무국은 이 연구가 “정책일관성과 세계 식량안보” 관련한 4가지 연구의 하나로써 신흥국과 개도국의 정책집행자들이 농업부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어떻게 농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개발할 것인지에 관련된 것이며 연구의 범위, 분석방법과 수단, 결과물과 시간계획에 대한 내용을 설명함
- 다수의 회원국(일본, 스페인, 프랑스, EU 등)은 식량안보와 관련하여 내용이 상관관계가 부족하므로 주요한 식량안보 내용이 들어가도록 해야한다고 발언
 - 프랑스 : 지표의 선정이 엄격 해야하며 매우 민감함 20개의 국가중에 어떻게 국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 설명 요청, 탄자니아와 베트남이 식량안보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지 데이터 수집에 어려움을 없을지 의문
 - EU : 연구범위에서 식품분야 포함되어 있어 범위가 확대되어 있음. 지역적 범위나 산업적 범위 등에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노르웨이 : 어떤 종류의 농업(what kind of agriculture)에 대한 발전환경(enabling environment)인가에 대한 분명한 제시 필요. 이것은 indicator 선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요성에 따른 가중치 적용에도 영향을 미침
- 사무국은 24일까지 서면의견을 받고 대표단 코너에 올라온 회원국들의 의견을 받

영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라 설명.

8. 농정평가보고서 핵심요약부분 재논의

- 회원국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된 것에 감사하나 몇가지 수정할 부분을 제안함
 - 노르웨이가 반복하여 para5의 식량자급이 중요정책이며 이것이 수출제한, 시장가격지지 생산연계지불이 높게 지속되는데 원인(driver)이 된다는 부분에 수정을 제안하고 프랑스는 science-based 단어는 technical measures와 연계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으므로 수정요청함
- 사무국은 프랑스의 제안에 대해 새로 단어를 작성하겠다고 하였으며 driver 대신 다른 단어를 사용하거나 노르웨이를 문장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개별적으로 논의함

9. 국가수준평가, 개발 정책일관성 식량안보에의 영향 개발도상국

- 개발협력이사회에서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농업과 무역 정책을 포함하여 OECD 국가들의 국내 식량안보에 영향을 주는 개도국에 사용된 방법론을 개발하는 연구임. OECD 개별국가의 정책효과 분석은 OECD 데이터만을 통해서서는 어려울 것이며 이와 관련한 논의는 6월에 워크샵에서 자세하게 논의할 예정

10. 배가된 수요에 대응한 농업생산성 성장 강화

- 사무국은 중국 농업부 산하 농업무역진흥센터(ATPC)와 공동으로 전세계적으로 농업생산성 성장을 강화할 정책 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위한 워크샵 개최 일정을 설명함. OECD 쪽에서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수확계획(Global Harvest Initiative, GHI)과 사업 및 산업 자문위원회(Business and Industry Advisory Committee)가 중국과 국제 생산성 제고를 위해 수행했던 성과 경험들을 공유해 관계기관들에 도움이 될 만한 결과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중국 농식품업계와 ADB, FAO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11. 기타

- 녹색성장에 대한 연구 보고와 카자흐스탄 농업정책리뷰, 지난 APM 회의 이후의

경과보고, OLIS 시스템의 사용법 설명이 이어짐. 회의결과는 다음날 오전 대표
단코너에 게시하기로 함.

OECD농업무역합동작업반(69차 JWPAT) 회의

1. 민간표준과 공공규제의 시너지

- 사무국은 이 작업의 목적이 민간 및 공공기준의 시너지효과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돕는데 있으며 회원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민간 농업환경 기준(private agri-environmental standards)의 범위, 이행 및 실시를 위한 정부참여 수준을 제시하는데 있음을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분석방법 중 회원국 분석에 국가들의 참여를 요청함
 - ‘유기농산물’과 ‘우수농산물관리(GAP)’기준을 포함한 농업환경기준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3 단계 분석이 제안됨. 개념적 정의(Conceptual phase), 국별 사례분석(Country case studies), OECD 회원국 분석(OECD wide analysis) 등의 단계이며 이를 위해 관련 국가정부 담당자와의 질의 및 면접방식 중심으로 분석
- 회원국은 전반적으로 이 연구가 시의적절하며 분석의 결과가 유용할 것이라고 발언
 - 스위스, 프랑스, 한국은 국가별 사례분석에 참여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힘.
 - 프랑스는 기업-기업 기준과 기업-소비자 기준을 구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제안함,
 - 캐나다 : 환경기준에 대한 민간과 공적인 기준의 차이에 대한 적절한 내용과 민간기준의 가치사슬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함
 - 브라질 : 민간 기준이 적용되는 곳인 슈퍼마켓은 과학적이지 않음, 민간 기준은 매우 많은데, 그리고 나라마다 다를수 있는데 어떻게 통일된 또는 유사한 기준을 제시할 것인가, 특히 민간의 가치사슬에서 적용되는 기준들이 다를 수 있음에 대한 유의 필요
 - 한국 :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으며 사례분석에 참가하고 싶으나 한국은 민간표준의 발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기회가 된다면 참여하고 싶다고 발언
- 사무국은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중요함 다른 곳에서 이미 논의된 개념을 교체하는 것이 아닌 연구가능하고 유용한 작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요보고서의 연구제안이 이 분석의 주요기반이 될 것이며 이 내용에 대한 각국의 분석이 이루어

진 경우 정보제공을 요청, 사례분석에 자원해주어 감사하며 각 국에 개별적으로 연락할 예정임을 설명

2. 지역무역협정(RTA)이 칠레의 과일수출에 미친 영향

- 사무국은 이 보고서가 RTA가 칠레의 과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인 분석을 수행한 컨설턴트 보고서로 이번 회의에서 공표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목적으로 제기되었으며 이번 최종본은 전체적인 내용면에서 기존과 동일하되, 지난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요청한 일부 사항들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내용은 아래와 같음) 이어서 칠레 대표단의 칠레농업에 대한 시대적 설명이 이루어짐
 - 비공식적인 정부와의 논의내용은 제거하고 대신에 활용가능한 참고문헌을 인용
 - 수출업체와 무역협회 대상 조사설문지 수록
 - 수출업체 조사표본에 대한 기술
 - 칠레의 FTA 추진과 무역정책에 대한 통시적인 설명
- 회원국들은 보고서의 최종본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평가를 내리며 사무국은 공개결정을 내림

3. 지역무역협정과 농업: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 농업위원회는 2013-14 작업예산계획(2013-14 PWB 3.2.2.2.2) 수립시 농업무역 분야에 지역무역협정에서 다루어진 농업부문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시사점)와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포함시킨 바 있으며, 이 보고서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설계서에 해당.
 - 첫 번째 주제는 ‘지역무역협정에 포함된 농업 관련 내용에 대한 검토’임
 - 두 번째 주제는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 무역증대에 미친 영향’임
 - 세 번째 주제는 ‘지역무역협정이 농산물 무역구조를 변화시켰는지 여부’임
 - 마지막 주제는 RTA 경험을 다자무역체계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는 것임.
-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함
 - 아르헨티나 : 어떤 종류의 RtA(regional trade agreement)를 연구에 다루는지에 대한 분명하지 않고 RTA의 파트너에 대해서도 분명하지 않음.

- 스페인 : 어떤 국가들이나 지역이 분석대상이 되는지 명확지 않은데, 라틴 국가들을 고려하는 것(칠레같은)도 유용하겠으나, 오랜 경험과 자료(지표들)를 가진 유럽지역(스페인 포함)을 포함해 주길 바람.
 - 스위스 : 어떤 종류의 방법론을 분석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의문
 - 일본 : paragraph8에서처럼 OECD의 RTA 목적은 자유화에 있는데, 수입 규제 뿐 아니라 수출규제에 대한 부분도 공정하게 다루어져야 함
 - UK : RTA의 특징을 정리할 때 각 나라들은 상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 또한 시기적으로 조금 다를 수 있음.
 - 에스토니아 : 기존에 되어진 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다소 집약적(compact하게)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 사무국은 각 국가의 RTA 분석에서 게임이론의 network 분석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농업분야에서 자유화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는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나 질적 수준은 알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한 가치판단은 배제함. 그러나 농업분야에서 Agreement의 파급 영향은 매우 구체적(농업인들, 정책, 품목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RTA의 표준이나 대표성을 가진 agreement는 없는 상황에서 특정한 RTA만을 고집할 수는 없음.

4. 농산물 수출제한

- 사무국은 먼저 산업적, 농업적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을 시연함.(www.oecd.org/tad/ntm or www.oecd.org/agriculture) 이 보고서는 농산물 수출제한이 2000년대 들어 빈번한 국제 곡물가격 급변동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인식 하에, 최근 주요 곡물생산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다양한 수출제한조치를 개괄한 보고서로 작년 11월에 논의되었던 최종보고서에 회원국의 의견/요청(서면검토 포함)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여 이번 회의에서 공표 여부에 대한 최종 승인을 목적으로 논의됨.
- 2007~2011(2012) 기간 동안 16개국(농산물 수출대국)을 대상으로 주요 농산물의 수출제한 조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진행하였으며,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밝혀진 정성적인 분석내용을 제시
 - 다자무역체제(WTO)에서 다루어지는 수출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para 19~24) 추가
 - 수출제한조치(더미)가 수출량 또는 수입량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옥수수,

밀, 쌀을 대상으로 더미변수를 활용한 회귀분석) 결과 수록(para 97~100, 118~123)

- 스위스, 일본, 노르웨이,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다수의 회원국들이 수정본 자체로의 공개를 지지하며, 다음 연구로 수출제한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것을 진행해 주기를 요청함.
- 아르헨티나 : 수출세 부과에 따른 수출제한과 관련하여, 다소 균형 잡히지 않은 기술에 대해 반발함. 수출제한에 대한 분명한 설정 부족(oecd 연구진 대응- wto 문건들에서 사용하는 방식 사용). 특히, 우르과이라운드 이후에 수입관세 상한 등이 para28에 근거하여 거의 수입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해왔음. 특별농업조치(special agricultural safeguard) 등에 따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보호 정책도 매우 높아져 왔음. 또한 허용보조에 따른 보호효과는 수입관세 상한을 넘어서는 것임. 그런 점에서 아르헨티나의 수출세 부과나 수출제한 조치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기술은 문제가 있음. 또한 정확한 효과에 대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임. 또한 기술방식에서 수입에 대한 보호와 수출제한을 같은 입장에서 다루길 요구함. 즉, 수입보호정책이 국제시장에 미치는 불안감을 수출제한에 따른 국제시장 불안감을 같은 경중에서 다루길 요구함. 예, 68에는 수출제한의 효과만 나와 있고, 수입보호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음.
- 프랑스 : 수출제한의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데이터 가용성 등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언급되어야 함. 향후 연구에서 국내시장영향(국내가격, 지역공동체의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반영되길
- 일본 :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 모집에 대하여 조금 더 최근 자료여야 하며 수출제한의 효과 계측의 어려움이 있는 애그링크모델 사용의 한계(모델 업데이트 안됨)
- 영국 : 생산, 수출, 수출제한 등으로 주제들 간의 연관성이 있도록 기술하여야 하며 97-100 수출 가능한 잉여(생산에서 소비를 차감한 양)를 가지고 계산한 방식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 필요하며 향후 연구에서 수출제한이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는 것이 향후 연구의 일관성이 있을 것임
- 사무국은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받은 후 대표단 코너에 수정된 보고서를 올려 의견을 받겠다는 일정을 설명함.

5. 기타

- 식품과 농업의 장기 시나리오에 대한 시나리오 비교방법과 연구결과의 범위를 좁혀간 과정을 소개하고 정책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분석이 이루어질 것을 설명, 더 경험있고 시나리오를 모델링할 수 있는 전문가 추천 바람
- 11월에 민간표준관련한 세미나 개최, 민간 등 모두 참가

6. 러시아 가입 업데이트

- 무역위에서 논의됨, 러시아의 프리젠테이션이 있었고 SPS를 포함하여 농업 전반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짐 회원국들은 시스템적인 정보를 서면으로 요청함, 6/7일 농업위원회에 참석할 것이며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이슈페이퍼를 논의하며 비공개회의로 진행, sps와 관련하여 논의가 자유로우며 다른 위원회와 공동으로 접근할 것임
- 한 회원국이 러시아측에서 질문을 미리 받아 전문가들에게 답변을 준비하게 할 수 있는지 질문하였고 사무국은 기꺼이 역할을 수행할 것이고 질문 제출 시한은 다음주까지 임.